

건강과 수행

기적을 부르는 감사의 마음

코로나19 극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은 호흡이다.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 산소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흘러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

즉,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들은 원료가 되고 산소는 그 원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소 중 일부가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주변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을 주게 된다.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받은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기도 하는데 세포가 생리적 기능을 잃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뇌세포나 혈관세포, 피부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 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므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피, 기뻐하는 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피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견뎌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것이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된다.

감사의 피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견뎌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므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피, 기뻐하는 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피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견뎌 수 있는 아주 강한 피로 변하게 된다.

이쯤 되면 활성산소의 발생은 줄어들 것이며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받은 세포는 복구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가 과연 쉬운가? 세상 말에 '극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자(天下勝者)'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를 이기는 자는 천하를 이기는 자'라는 뜻인데 그만큼 '나'를 이긴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승리신문 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마귀이고로 마귀인 내가 '나'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는 음식을 잘 먹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을 더 잘 먹어야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9회>

과거를 생각하려면 뒤돌아볼 수 없는 경지를 향한 짓이기는 연단

-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요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지난호에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해와 이긴자께서 망원동에 자택을 두고 매일 밀실까지 출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항상 오시던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셔서 '언제쯤 오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와 이긴자는 다른 날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시면서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조사장이 새끼, 이게 같은 새끼! 기다리는 음란죄에 걸려서 떨어졌다!"고 하시며 야단을 치시고는 목을 놓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밀실 식구들이 해와 이긴자를 따라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도 두 다리를 땅바닥에 다 뻗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또 하나님을 괴롭혔으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해와 이긴자의 쓴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또 마음속으로 '이 게 같은 마귀새끼 더 때려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며 고소하게 여기고, 이를 갈고 치를 떨며 다시는 기다리는 음란죄에 걸리지 않으리라 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오목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서 출발을 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깨비가 보이는 것은 피 작용에 의한 마음속에서 유발되는 현상

또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해와 이긴자께서 밀실 정문에서 왼편에 위치한 외딴 집에서 잠을 자라고 하



밀실 정문에서 왼편에 위치한 외딴 집

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의 식사는 거기서 좀 떨어진 집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외딴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나가도 또 저녁에도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때마다 밥을 먹고 숙소까지 가는 중간에 어떤 할머니가 지켜 서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말하게 되면 약한 마귀한테 쫓다가 되고 또 그런 걸 봤다고 겁을 내도 약한 마귀한테 쫓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할머니가 일곱째 천사 앞으로 걸어오는데, 몇 달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도깨비가 거기 서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써 즉 마음속에서 그런 작용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일곱째 천사는 겁을 내지 아니하고 무심한 상태에서 '야, 까불지 마라. 이미 조희성이가 이 세상을 하직하신 지가 오래됐어.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없어. 이 세상에 없어. 지금 오가며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을 그릇을 삼고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는 거야' 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얀 할머니가 보였던 것은 전봉국 집사님의 어머니를 거다가 문었다는 얘기를 밀실에 들어간 일곱째 천사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그 일곱째 천사의 핏속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실제처럼 할머니가 캄캄한 밤이면 항상 걸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 들어온 석사집 전도사나 송병철 전도사는 그런 것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밀실에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가 된다

일곱째 천사는 늘 아침마다 일찍이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가지에 손이 찢려가면서 축구장 서너 배 크기의 밀실을 둘레로 돌아가며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와 같이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있는데, 먼발치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과거에 논산 훈련소 교관으로 있으면서 금마제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반장이었던 최형식 학생과 꼭 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 최형식 학생은 일곱째 천사가 개척한 금마제단에도 나와 열심히 신앙하였기에 아까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순간 최근에 대한 생각이 스쳐지나갔는데, 이를 아시고 해와 이긴자께서는 저 아래 산기슭에서 "조사장~ 조사장~"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진 돼지 목 따는 소리도 아니고 그 고함소리가 어쩌나 큰지 산이 찢렁찌렁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다 말고 열린 지계를 메고는 '이르, 또 걸렸구나!' 하고 부리나케 뛰어 내려갔습니다. 밀실식구들의 보는 눈이 있는고로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시고는 해와 이긴자의 방에다가 데려다놓고 다짜고짜로 때리

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단치시기를 "조사장 이 새끼, 또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이긴자는 욕을 퍼부으면서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당최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바로 주먹따귀가 사정없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주먹따귀를 냅다 맞고 얼굴이 얼얼한 상태에서 "나는 진짜 무슨 영문인지를 모릅니다."하고서 이야기 하니, 웃으면서 해와 이긴자가 말씀하기를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과거 생각을 안했던 말이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나 생각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해와 이긴자가 "20년 전에 공부 가르친 제자를 보지 않았소?"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곱째 천사는 '어떻게 내 생각을 아실까?'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공부 가르쳤던 학생이 산에서 옆으로 지나가기에 20년 전에 나한테 공부한 학생이 옆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봐. 그 게 과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겁이 났으며, 다시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 틈을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산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니까 그런 과거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게 같은 마귀새끼가 쉬기는 뭘 쉬어! 마귀새끼, 너는 죽어야 되는데 쉬면 마귀가 도로 살아나니까 쉬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나를 미워하며 짓이기는 생활로 돌입하게 되니, 하루는 해와 이긴자께서 일곱째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부터 기도를 많이 해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新金剛經 海설(新金剛經 解說) <46>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第二十三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라 (2)

須菩提 수보리

所言善法者 如來說即非善法 是名善法

소언선법자 여래설즉비선법 시명선법

수보리아, 이른바 착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래(석존)가 말씀한 것이 (사실은) 착한 법이 아닌 것을 일러서 착한 법이라고 한 것이다.

[해설] 착한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른바 착한 법이라고 한다면 우선 나와 나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아상(我相)이 있어서 나와 나의 차별이 있고, 높고 낮은 지위가 분별되며, 사회의 빈천함이 구분되는 것이니 이것이 옳지 못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상(人相)이 있으므로, 동물과 식물을 분별하고 동물이 인간보다 저급하다고 하여 마구 학대하고 살생하는 것을 서슴

지 않으니 이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또한 "오직 석존(釋尊)만이 부처요 나는 중생인지라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 하고 불교 이외에는 종교가 없다고 한다면 이도 옳지 못하는데, 이는 석존의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고 하여 만물이 부처님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틀린 생각이며, 내가 100살도 못 살면서 60살, 70살, 80살을 살았으니 오래 살았다(壽者相) 한다면 불법(佛法)의 근본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서(生老病死) 벗어나 한량없는 삶을 살아야(無量壽)하는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당시 3천여년 전 사람들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으니 이 또한 착한 법과는 그 뜻과 격이 틀린 것이므로 당연히 착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석존은 이 금강경을 통하여 사실대로 "착한 법이 아닌 것을 착한 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절집에서는 "사람이 육도의 윤회(輪廻)를 한다.", "나쁜 짓(惡行)을 많이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내지는 "이상한 동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씀들만 대중들에게 늘어놓으면서 나쁜 짓(惡行)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도둑질, 살인, 강도 등 세상의 나쁜 짓이 죄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법어(法語)니 법문(法問)이니 하니, 당치도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가 뭔지 죄의 근본을 한 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경전을 살펴보면 경전에는 사람이 죽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쓰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일야합경 47권

목우품(牧牛品) 제49 구분품(今分品) 如人自造行 還自觀察本 여인자조행 환자관찰본 善者受善報 惡者受惡殃 선자수선보 악자수악양 世人爲惡行 死受地獄苦 세인위악행 사수지옥고

마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짓을 스스로 되돌아 근본을 관찰해보면 착한 이는 착한 값을 받고 나쁜 이는 그 양값을 받는다. 세상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고통을 받는 것은 나쁜 짓(惡行)을 하기 때문이다.

대반열반경 제16권

법행품(法行品)의 3 虛妄之法則是罪 以是罪故墮於地獄 허망지법즉위시죄 이시죄고타어지옥 허망한 법이 곧 이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다.

[해설] 그러면 악행(惡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악행이란 바로 나쁜 행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런 악행을 악행인줄 모르고 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중일야합경 12권 삼보품(三寶品) 제21

爾時世尊告諸比丘 이시세존고제비구



삼악취(三惡趣):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의 유정들이 받게 되는 모진 쓰러림과 참기 어려운 고통 출처: https://sky22361000.blogspot.com/2014/02/blog-post_25.html

有三惡行 云何爲三

유삼악행 운하위삼

所謂身惡行口惡行意惡行

소위신악행구악행의악행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길 나쁜 짓(惡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셋인가? 이른바 몸으로 나쁜 짓을 짓는 것, 입으로 나쁜 짓을 짓는 것, 과생각으로 나쁜 짓을 짓는 것이다.

[해설] 이렇게 신구(身口意) 삼업(三業)의 악행(惡行)으로 되어 사람들이 지

급까지 다 죽어 갔다면 또 이런 것이 죄

였다면 이런 죄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나쁜 짓으로 인하여 죄를 짓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죄를 짓게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도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天手經)의 십악취회(十惡穢會)를 보면 다음과 같이 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明鐘